“누군가에 소중한 연탄 한 장 위해 오늘도 갱도 들어갑니다”

2018 동행
이들이 있어 행복하다

❶ 화순광업소 임용귀씨

습도·분진 악조건 속 구슬땀
갱도안서 식사·용변 모두 해결
천장서 떨어진 돌에 큰 부상도
2대 째 광부…폐광 소식 허탈
정년까지 석탄 캐는 것이 꿈

캄캄한 갱도를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미소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광부 임용귀(43)씨가 석탄이 담긴 광차 옆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삶과 꿈을 이야기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연탄 한 장이 아쉬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정년까지 석탄을 캐는 것이 꿈입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지난 26일 만난 광부 임용귀(43)씨. 11년째 탄을 캐고 있는 임씨는 석탄 가루가 까맣게 얼룩진 얼굴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는 “사람들은 지하에서 남모르게 땀 흘리는 광부에 대해서 몰라주지만 광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화순광업소에서 조장으로 일하는 임씨는 지난해 1년 동안 단 이틀간 휴가를 쓸 정도로 소문난 일꾼이다.

임씨와 함께 탄광 입구에 들어서자 짙은 어둠의 장막이 앞을 가로막았다. 오전 8시30분, 바깥 세상은 아침이지만, 갱도의 시간은 여전히 칠흑 같은 밤이었다.

안전헬멧에 부착된 램프에 의지한 채 200여m를 걸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터널 입구에서부터 3㎞ 아래에 위치한 채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차(人車·갱에서 이동할 때 타는 차)에 몸을 실어야 했다. 작업현장인 3사 갱(갱도 번호)17편 권립(채탄 층 번호)은 지상에서 수직으로 440m에 있다. 30분간 인차를 두 번 갈아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아버지도 지난 1984년까지 10년 이상을 화순광업소에서 일했으니, 2대째 광부 집안입니다. 아버지 시절에는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는데, 이제 와서는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화순탄광의 폐광 얘기까지 들리니 허탈해요. 요즘은 회사에서 직원을 통 뽑질 않아 아직도 막내 신세입니다.”

오전 9시30분께 갱에서 작업하던 광부들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석탄을 캐낸 뒤 컨베이어를 이용해 광차에 옮기던 작업을 멈추고 컨베이어를 중단시켰다.

조장을 맡고 있는 임씨가 안전헬멧에 붙은 램프를 이용해 머리를 양쪽으로 2차례 가량 흔들며 광부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곧이어 메가마이트(다이너마이트 일종)를 갱 벽에 부착하고 전기식으로 발파를 준비했다.

임씨가 다급하게 “발파! 발파!” 크게 외치고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쾅’ 하고 메가마이트가 터지면서 안전거리로 대피해 있던 사람들에게도 귀가 얼얼할 정도의 폭파의 후폭풍이 미쳤다. 그 순간 미세한 석탄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분진마스크를 썼지만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려웠다.

발파 후 6분가량 지나자 다시 작업이 시작됐다. 광부들은 컨베이어벨트에 석탄을 퍼담는다. 이렇게 나온 석탄은 광차에 실린다. 광차 1대당 3t의 석탄을 실을 수 있다. 화순광업소의 갑팀의 하루 작업량은 200t이다. 광차로 따지면 67대, 광부 1명당 9t을 채광하고 있다. 화순광업소 석탄 매장량은 1800만t이며 매년 평균 20만t씩 생산했을 때 90년을 생산할 수 있는 매장량이다.

“채탄장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습도도 높아 분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분진은 적지만 습식 사우나 같은 환경 탓에 작업복을 3벌 챙겨 작업 중간, 점심 휴식시간, 퇴근할 때 갈아입습니다.”

그의 말처럼 갱 안의 공기는 덥고 습했다. 온도는 30도, 습도는 80%에 달했다. 임씨는 “탄광입구에 환기 장치를 설치해 작업장까지 바람을 넣고 있다”면서 “지하까지 내려오면서 바람의 양은 줄지만 그나마 이 바람 덕분에 광부들이 수월하게 채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부들은 2교대 근무한다. 과거에는 3교대였지만 현재는 44명이 갑·을팀으로 절반씩(22명) 나눠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고 있다. 갑(주간)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을(야간)팀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일한다. 광부들은 한번 갱으로 출근을 하면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점심식사도 직접 도시락을 챙겨와 갱안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해결한다. 용변 역시 화장실이 없어 갱안에 흐르는 지하수에 흘려 보내고 있다.

11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임씨는 한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 2년 전 동료와 함께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서 떨어진 돌이 임씨의 왼쪽 다리를 덮친 것이다. 이 사고로 인대가 파열돼 10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임씨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누구나 아찔한 경험이 하나씩은 있다고 설명했다.

큰 부상을 당한 임씨는 화순 탄광을 떠날 생각도 했지만 목숨을 걸고 일하는 동료가 걸려 결국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부부는 생활고에 따른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달 27일 이혼했으나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었다.

정씨와 이씨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고교 3학년이었던 지난 2013년 6월 첫 아이를 낳았고 둘째 아들을 얻은 2015년 혼인신고를 했다. 생활비는 대부분 이씨가 편의점·PC방 아르바이트 등으로 벌었으며 최근에는 특별한 직업없이 지냈다. 정씨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긴급복지지원(한달 137만5000원)을 받았으며, 지난 11월 말에 3개월간의 추가 지원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혼 후 월 100만원 수준의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받기로 했지만 삼남매를 혼자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최근 아이들을 보낼 보육원을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삼남매의 부검, 정밀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사망원인과 화인을 조사하는 한편, 방화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정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삼남매 화재 참변…엄마 체포 방화 여부 조사

“담배 피우다 불 났다” 진술
아이들 놔둔 채 도피 의문
전날 남편에 ‘죽고 싶다’ 메시지

무술년(戊戌年)을 하루 앞둔 지난 31일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 삼남매가 숨졌다.

어머니 정모(22)씨는 ‘술에 취해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정씨가 홀로 피신한 점, 화재 직전 전 남편에게 ‘죽고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방화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일 광주북부경찰과 북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31일 새벽 2시28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정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작은방에서 잠자던 큰 아들(4), 작은 아들(2), 막내딸(15개월)이 숨졌다. 정씨는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삼남매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있었으며 코와 입에서 그을음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의 진술을 토대로 1일 오후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담배를 작은방과 맞닿은 거실에 있던 이불에 비벼 끈 후 작은방에서 울며 보채는 딸을 달래주다 잠이 들었다.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연기 냄새 등에 의해 잠을 깨고 보니 작은방 문 밖에 불이 나 있었고 현관쪽에도 불이 보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불을 덮어준 후 베란다로 피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서 불은 주로 작은방을 태우고 부엌과 거실은 연기에만 그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씨의 진술과 달리 작은 방문 쪽이 아닌 안쪽에서 발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씨가 불이 난 현장에 아이들을 놔둔 채 자신만 피신한 점,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씨는 화재 전날 밤 9시40분께부터 전 남편 이모(21)씨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죽고 싶다”, “나 이 세상에서 사라질거야” 등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작은방에서 아이들을 재운 뒤 같은날 밤 9시45분께 친구들과 게임을 하려고 양산동의 한 PC방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입 정시모집 6~9일 원서 접수

상위권 눈치작전 심할 듯

2018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이달 6일부터 9일 사이 진행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국어영역과 수학영역 나형 1등급 학생이 늘어 상위권 학생들의 눈치작전이 심할 것으로 입시 전문가들과 교육계는 내다보고 있다.

1일 전문가들은 정시 지원전략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원칙이 분명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 “성적과 진로희망 등을 두루 고려해 원칙을 마련하고 적정·안정·소신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눈치작전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막판에 하위권 학과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높아지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직전 마지막으로 공표되는 경쟁률이 낮은 학과만 노리는 과도한 눈치작전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시 원서접수에 앞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대학별 모집요강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별 영어영역 성적 반영방식을 꼼꼼히 살펴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광주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적정·안정·상향지원을 하나씩 하는 ‘1승 1무 1패’ 전략을 사용한다”면서 “하지만 재수생 등 올해 꼭 합격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41 / 해짐 07:32 / 달뜸 17:53 / 달짐 07:24

체감온도 낮아요

건강관리 유의하세요

◇지역별 날씨 (℃)

광 주	구름많음	-3/8	보 성	맑음	-5/7
목 포	구름많음	-1/7	순 천	맑음	-2/8
여 수	맑음	0/8	영 광	구름많음	-5/6
나 주	구름많음	-6/8	진 도	구름많음	-1/8
완 도	맑음	0/8	전 주	구름많음	-3/6
구 례	맑음	-6/7	군 산	구름많음	-3/6
강 진	구름많음	-4/9	남 원	구름많음	-5/6
해 남	구름많음	-6/8	흑산도	구름많음	4/8
장 성	구름많음	-5/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먼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서~북	1.0~1.5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09	01:40
	19:51	14:31
여수	02:44	09:22
	15:24	21:29

◇주간 날씨

1/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2/4	-3/5	-1/4	-1/6	-2/7	-1/6	-2/4

새해 첫주 광주·전남 흐린 날씨 이어지다 한차례 눈·비

무술년 첫 주(2~7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한 차례 눈·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부터 4일까지는 광주·전남은 저기압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고 5일 오전부터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1일 밝혔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6도~9도로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5일 오전부터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으나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주말인 6일과 7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고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주말 아침 기온은 영하 5도~0도, 낮 기온은 5도~8도 분포를 보이겠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달 3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가 발령돼 31일 해제됐다.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선동 88㎍/㎥ ▲서석동 81㎍/㎥ ▲주월동 81㎍/㎥ ▲두암동 76㎍/㎥였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문상필 광주시의원 업무상 배임 무혐의

장애인단체 직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은 지난 28일 문 의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수사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은 문 의원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체육회 직원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직원의 사회 경력을 호봉에 산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문 의원은 당시 사회 경력을 호봉에 포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광주시와 상의한 뒤 광주시 담당자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경찰은 하지만 사회 경력 호봉산입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몇 달간 수사를 벌여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경찰이 제기한 문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입증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월출산 등 국립공원 화장실 CCTV 첫 설치

무등산·월출산 등 국립공원내 화장실에 범죄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CC(폐쇄회로)-TV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공단)은 “국립공원 내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21일 탐방로 216곳과 화장실 입구 248곳, 고지대 6곳 등 총 470곳에 CCTV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립공원 CC-TV는 대피소 등지에 설치됐으나 화장실에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CC-TV는 이번 추가 설치를 통해 기존 209대에서 총 679대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무등산에는 탐방로 38곳, 화장실 8곳 등 46대가, 영암 월출산에는 탐방로 2곳, 화장실 6곳 등 8대가 추가 설치됐다. 지리산에는 탐방로 21곳, 화장실 26곳 등 모두 47대를 새로 도입했다.

여수, 진도, 신안지역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도 28대(탐방로 12곳·화장실 16곳)가 추가 설치됐다. 공단은 또 지리산·설악산·태백산·오대산·덕유산·주왕산 등 6개 산 고지대에 CC-TV를 설치해 정상부의 실시간 모습을 기상정보도 함께 탐방로 입구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경찰 신고 않기로 하고 친구끼리 일대일 결투…주민이 신고

쌍나팔

○…30대 친구 2명이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주먹다짐을 벌이다 나란히 경찰서행.

○…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최모(38)씨와 친구 강모(38)씨는 지난 30일 자정께 광산구 한 호프집에서 앙금을 털어놓다 감정이 격해져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일대일 결투를 하기로 했다는 것.

○…실제 이들은 이날 새벽 1시15분께 호프집 후문에서 싸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강씨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것 같다. 연휴 끝나는 대로 조만간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